

인천광역시와 일본 코베시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

2010. 2. 3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1. 13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. 14
- 라. 상정일자 : 2010. 1. 29 (제1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국제협력관 곽하형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1868년 개항한 역사성을 가진 일본 유수의 항구도시 코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친 인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시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추진배경

-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유사
- 의료산업, 나노테크, 항공우주 등 최첨단산업 발달로 시너지효과 창출
- 관광, 컨벤션, 환경, 도시재생,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 교류 효과 기대

다. 추진경위

- '09. 5. 27 : 정무부시장 코베시 방문, 양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최초 제안
- '09. 8. 24 : 코베시 국제추진실장 방인,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
- '09. 9. 15 : 코베시 부시장 등 대표단 APCS 참가
- '09. 12. 15 : 코베시 국제문화관광국장 방인, 자매결연체결 실무협의
 -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정식 제안하는 코베시장 친서 전달
 - 2010. 4월 코베시장 방인 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희망

라. 기대효과

-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산업의 입지, 대규모 산업단지 발달, 관광 산업 진흥 등 우리시와 산업 특성이 유사하며 코베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경기침체 등 여파를 타파하기 위하여 코베의료산업도시 구상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IFEZ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발전 가능성이 높음
- 코베비엔날레, 코베국제플루트콩쿠르, 아시아도시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'디자인 도시' 등재 등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완비하고 있어 관광, 컨벤션, 학생 교류, 도시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 상당함.
- 역사적·문화적 유사성, 지리적 인접성, 코베 방문 관광객 규모 중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인적 교류, 양국 간 교역 및 직접 투자규모 증가 추세 등 다 방면에서 교류의 실익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

마. 향후일정

- 자매결연 의회 의결 : 2010. 1월
- 자매결연 체결식 : 2010. 4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금번 일본 코베시와의 자매결연안은

- 양도시간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코베시는 일본의 6대 도시로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며 인구는 약 150만명에 이룸.
- 「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의하면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, 상호보완성,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,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, 역사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,
- 자매결연안 자료 3~5쪽의 기대효과, 코베시 개황, 양 국가 및 도시비교 현황 등을 살펴볼 때, 코베시가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도시로서 재정 규모, 산업특성 등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높고, 문화·관광·학생교류 등의 협력 및 우호 증진, 양도시간 인적·물적 교류에 있어서도 실익의 상당한 기대성이 높다고 보여짐.

○ 다만,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는

- 자매결연 도시의 수적인 확대도 중요하나 자매결연 체결후의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, 코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 등 상호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윤지상, 지정구, 김용재, 유천호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 - 우리시 자매도시 중 의회차원의 교류 추진 필요

- 자매결연 도시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? 자매결연은 1개국 1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호도시로 해야 되지 않나?
-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은?
-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구분 실익이 없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나?

< 답 변 >

○ 국제협력관 곽하형

- 절차적 차이로 자매도시는 의회의결을 하고 우호도시는 의회 사전 보고로 실질적 차이는 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윤지상, 지정구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7. 기타사항

○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와 일본 코베시간의 자매결연안 1부. 끝.

『인천광역시와 일본 코베시』 간의 자매결연안

□ 제안 이유

- 1868년 개항한 역사성을 가진 일본 유수의 항구도시 코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친 인천 네트워크 확대에 우리시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추진 배경

-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유사
- 의료산업, 나노테크, 항공우주 등 최첨단산업 발달로 시너지효과 창출
- 관광, 컨벤션, 환경, 도시재생,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 교류 효과 기대

□ 주요 추진경위

- '09. 5. 27 : 정무부시장 코베시 방문, 양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최초 제안
- '09. 8. 24 : 코베시 국제추진실장 방인,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
- '09. 9. 15 : 코베시 부시장 등 대표단 APCS 참가
- '09. 12. 15 : 코베시 국제문화관광국장 방인, 자매결연체결 실무협의
 -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정식 제안하는 코베시장 친서 전달
 - 2010. 4월 코베시장 방인 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희망

□ 기대효과

-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산업의 입지, 대규모 산업단지 발달, 관광 산업 진흥 등 우리시와 산업 특성이 유사하며 코베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경기침체 등 여파를 타파하기 위하여 코베의료산업도시 구상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IFEZ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발전 가능성이 높음
- 코베비엔날레, 코베국제플루트콩쿠르, 아시아도시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'디자인 도시' 등재 등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완비하고 있어 관광, 컨벤션, 학생 교류, 도시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 상당함
- 역사적·문화적 유사성, 지리적 인접성, 코베 방문 관광객 규모 중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인적 교류, 양국 간 교역 및 직접 투자규모 증가 추세 등 다 방면에서 교류의 실익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

□ 향후 일정

- 자매결연 의회 의결 : 2010. 1월
- 자매결연 체결식 : 2010. 4월

□ 별첨 : 일반현황 및 관련규정

- 일본 코베市 개황 (별첨1)
- 코베市 위치도 (별첨2)
- 양 국가 및 도시 비교 현황 (별첨3)
- 국제자매우호도시현황 (별첨4)
-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(별첨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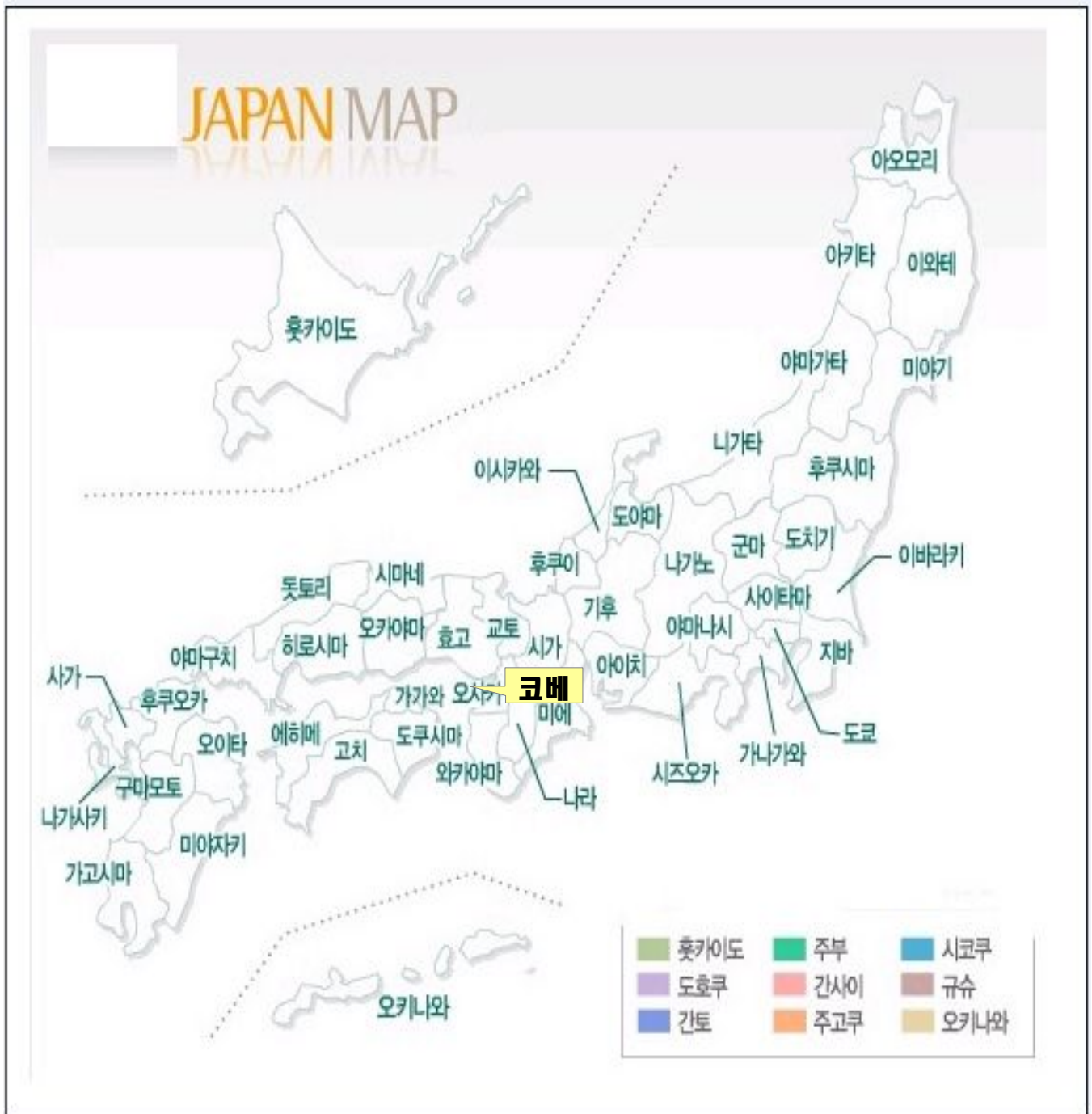
《별첨 1》

일본 코베시(Kobe)시 개황

- 시 장 : 矢田 立郎(야다 타츠오, 1940. 2. 7일생)
- 임 기 : 4년(2009. 11월 취임, 3선째)
- 시 의 원 : 吉田 謙治(요시다 켄지)의장 등 69명
- 인 구 : 1,536,093명(2009.5.1 현재)
 - 외국인 수 : 126개국 44,739명(한국인 수 : 조선인 포함 21,342명, 전체 1위)
- 면 적 : 552.8km²(2009.5.1 현재, 인천 : 1,008km²)
- 위 치 : 오사카 중심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위치, 동서로는
록코산맥, 남부로는 오사카항만을 접하고 있음
- 행정구역 : 9개 구
- 재정규모 : 1조 8천 8십 3억엔(약 24조원, 2009년도)
- 산 업 : 식료품, 철강, 일반기계, 수송 및 전기기계 산업 발달
 - 주요기업 : 카와사키 중공업(주), 미쯔비시 중공업(주), (주)코베제철소, (주)아식스 등
- 교 통 : 코베공항, 코베항 보유, 간사이국제공항 인접
- 도시특색
 - 1868년 개항한 항구로서 이국적 개항 거리와 온천 등 동서양의 정서가 어우러진 도시
 - 최근 ‘코베의료산업도시구상’ 을 바탕으로 최첨단 의료복지 관련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
- 자매우호도시
 - 자매우호도시 : 시애틀, 마르세이유, 천진 리가, 리오데자네이로, 브리즈번, 바르셀로나
 - 친선협력도시 : 필라델피아
 - 자매우호항구 : 시애틀항(미국), 노텔담항(프랑스), 천진항(중국)
 - 관광교류협정 : 테르니(프랑스)

《별첨 2》

코베시(Kobe) 위치도



《별첨3》

양 국가 및 도시 비교 현황

구분	대한민국 (인천)	일본 (코베)	비고
명칭	대한민국	일본	
	인천광역시	코베시	
인구	4,927만명	12,768만명	
	275만명	154만명	
면적	99,720km ²	380,000km ²	
	1,008km ²	552.8km ²	
언어	한국어	일본어	
도시 비교 및 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베시는 1868년 개항한 항구도시로서 일본 최초로 지정된 정령지정도시 중의 하나이며 효고현청 소재지임. 면적과 인구는 인천시와 비교할 때 다소 부족하나 인구 면에서 일본 내 6위 도시이며, 외국인 44,739명 중 조선인을 포함한 한국인이 21,342명으로 외국인중 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• 코베시 총생산(GRDP)은 6조 201억엔, 1인당 시민소득은 2,932천엔임. 재정규모로는 우리시의 약 3배인 1조8천8십3억엔으로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• 공항·항만 보유 및 교통의 발달 등 인천시와 지역 여건이 유사하며 나노테크, 항공우주 등 최첨단 산업이 발달하였으며, 특히 최근에는 “코베의료 산업도시구상”을 바탕으로 의료복지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		